

데스크 시국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 부국장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I am not a crook).” 1973년 11월 17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한 말이다. 1년 5개월 전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알려진 민주당 전당대회 사무실 도청 사건(워터게이트 사건)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이었다. 1968년 대선에서 간발(0.7%)의 차이로 당선된 닉슨은 4년뒤 치러진 대선에서는 압도적인 지지(60.7%)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단순 절도사건 정도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대통령의 위증과 은폐, 거짓말

처음에 닉슨은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 했다. ‘딥 스로트(Deep Throat)’로 불린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두 기자(밥 우드워드·번스타인)의 끈질긴 취재로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러자 CIA에 FBI 조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장관에 특별검사 해임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뒀다. 특히 사건 은폐의 결정적 물증인 백악관 내부 녹음 테이프를 탄핵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고 버렸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출된 테이프를 통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들렸다. 결국 악화된 여론 속에서의 회가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닉슨은 자진 사임했다. 50여 년 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

은폐칼럼



박홍근
건축사

2월 중순, 한국도시계획학회 회원들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 건축답사를 다녀왔다.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곳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다.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도시를 즐기는 사람, 이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 유지·관리를 위해 후미진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곳에 사람이 물러들고 있다. 두바이 인구는 현재 약 350만명이다. 향후 20년 내에 약 6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경제 성장 계획에 기인한다. 163층에 828m높이의 ‘버즈 칼리파’ 빌딩과 주변으로 40~80층 높이의 건물이 즐비하다. 광주에서 40층 높이려면 엄청 높은 빌딩이지만 그곳에서는 낮은 건물이다.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시 생각하게 된다. 두바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무역, 금융, 쇼핑, 관광 등의 중심지로 자리

기고



기남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중부권지사장

‘기후 감수성(Climate Sensitivity)’이란 말을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 올해 트렌드코리아가 선정한 신조어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소비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가 일상을 위협할 수준까지 이르렀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회 곳곳에 깊이졌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물에 대한 고민이 자리한다. 지구 온난화는 물의 순환에 변화를 촉발했고 예측 불가능한 강수량 변화와 수자원 부족, 수질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기후변화로부터 일상의 안전을 지키려면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핵심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주안담을 취수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

하는 바가 크다. 사건 실체를 가리기 위한 대통령의 위증과 은폐 그리고 사법방해와 권력남용, 의회도둑... 현재 우리 상황과 너무나도 오버랩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8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만이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무실에서 취임 2주년 회견을 했다. 이때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를 두고 일하고 있음을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5월 방한했을때 선물한 명패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11차례의 탄핵변론 과정에서 명패에 적힌 문구와 같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음에도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여당, 변호인들도 경고성 계엄, 내란 프레임이라며 옹호했다. 대통령은 국회 불체와 의원 체포를 두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투입된 군 지휘관은 “지시를 받았다”고 ‘그날’의 팩트를 정직하게 증언했다.

지난 13일 열린 8차 탄핵변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국회 분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리는(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이의제기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밝힌다.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

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그날’의 진실과 간신배들

탄핵심판 방송을 보다 보면 영화 ‘라쇼몽(羅生門·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이 연상된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작가의 1915년 작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흑백영화로 195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수상한 작품이다. 하나의 살인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제각기 다른 진술을 하는 네 사람(산적, 부인, 무사, 나무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한다. 결국 각자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은 왜곡된다.

시민들은 12월 3일 늦은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소총을 든 수백 명의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내란 불명증’을 앓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았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거짓말과 잠수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가까운 미래, 역사학자는 12·3 비상계엄과 현재 탄핵심판 변론 항목에 누가 간신(諛臣)이었고 간신배(奸臣輩)였는지를 청사(再史)에 기록할 것임을... 답은 하니다.

광주, 두바이에서 도시 비전을 배우다

매김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사막의 작은 어촌도시에서 60여년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도자의 탁월한 ‘생각’과 ‘열정’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권국가이고, 오일머니가 있고, 장기집권을 하기에 가능했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차원의 ‘상상력’과 ‘계획성’과 ‘실천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그러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광주·전남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도지사, 지자체 장들은 두바이 지도자의 밑바탕에 흐르는 ‘생각’, ‘열정’, ‘자질’을 눈여겨볼 일이다.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1912~1990)은 두바이의 통치자이며 UAE의 첫 번째 부통령이자 두 번째 총리였다. 왕족이고, 정치인이며, UAE의 창시자였다.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 두바이를 이끌었다.

그는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 “우리는 석유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두바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닮고,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닮고, 나는 메르세데스를 운전했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했고, 그의 아들은 랜드로버를 운전하겠지만, 그의 아들은 낙타를 탈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에는 1966년에 발견되어 1969년에 생산을 시작한 두바이의 석유가 몇 세대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현실 인식과 다음 세대의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는 셰이크 모함마드 빈 라

시드 알 막툼(1949~ )은 1995년 왕세자로 지명되자 수많은 국가 건설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직접 통치하며 오늘의 두바이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가 구축한 여러 업적 중 눈여겨볼 건축물은 2022년에 개관한 두바이 ‘미래 박물관(Museum of the Future)’이다. 중앙이 비어있는 타원형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는 5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며 오늘에도 좋은 두바이를 만들어 가는 ‘철학’과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다. 외관의 독특한 꼬불꼬불한 무늬의 창틀은 셰이크 모함마드 국왕의 미래 비전 세 가지들 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새긴 것이다.

“생명의 갭신, 문명의 진화, 인류 발전의 비결은 간단하다. 혁신이다” “미래는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백 년을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창의력의 산물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유산으로 남는다”는 뜻이다. 오늘의 두바이를 있게 한 지향점 이 드러난다.

‘혁신’, ‘미래’, ‘창조’, ‘창의력의 산물’, ‘유산’ 등등 우리 단체장들도 많이 쓰는 언어지만 늘 허공에 흩어진다. 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리더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지역이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살고 싶은 도시인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바이 지도자가 지향하는 점들과 그 결과물을 다시 참고해보면 어떨까.

기후 감수성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으로 하는 주안담계통 광역상수도과 영산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대불계통 공급용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주안담에서는 일 평균 33만2000 톤의 물을 취수하여 193km에 달하는 관로를 통해 전남의 6개 지자체(광주·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로 전달한다. 해당 지역 전체 인구 중 34%인 65만여 명이 이 물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린다. 또한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에는 일 평균 1만3000 톤의 공급용수를 공급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 감수성을 반영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은 대표적인 노력 중 하나다. 이는 수질과 수량 등 다양한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빠르게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수질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국제 수준의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2012년부터 글로벌 수질기준을 도입하였고 취수원 수질 악화와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 증가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2021년부터는 냄새 물질과 조류독소 등 5개 대표물질을 선정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수질관리를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일도 주요 과제다. 이와 관련 2022년 식품위생 분야 국제표준 기준인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정수장 시설 전반에 식품위생 수준의 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방울의 물에도 환경과 지역을 살리는 가치를 담고자 한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이 길어지고 봄은 사라지고 있다. 막바지 겨울이 끝나면 곧바로 여름이 올 것이라 한다. 계절을 기대하기보다 기후를 걱정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서늘픈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날들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기후 감수성’이 올해의 화두가 된 것에서 희망을 본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고 대응하면 기후변화로부터 계절과 일상을 지켜가는 힘은 커질 것이라 믿는다.

전남중부권지사부터 앞장서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철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실현하고 ISO 22000 인증과 ESG 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社說

수치로 확인된 KTX 차별...호남 홀대 상징

호남선 열차는 정부의 호남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지역차별을 상징한다. 국토의 두 축이 호남과 영남인데도 투자는 영남쪽에 집중됐다. 1968년 착공한 호남선 복선화가 36년만인 2003년야 완공된 것이 지역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고속열차 시대를 맞았는데도 이런 호남 홀대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경부선 고속철은 2006년 완전 개통했지만 호남선은 광주 송정역 기준으로도만 해도 경부선보다 9년 늦은 2015년에야 개통됐다. 개통 당시에도 호남선은 경부선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요금은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런 호남 고속철의 차별이 당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내란 불명증’을 앓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았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거짓말과 잠수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가까운 미래, 역사학자는 12·3 비상계엄과 현재 탄핵심판 변론 항목에 누가 간신(諛臣)이었고 간신배(奸臣輩)였는지를 청사(再史)에 기록할 것임을... 답은 하니다.

사고 유발하는 도로 포트홀 보수 서둘러야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도로 포트홀(Pot Hole·도로 파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포트홀 민원은 폭 20m 이상 도로(광주시 관할) 5500여 건, 폭 20m 미만 도로(자치구 관할) 893건이다. 폭 20m 이상 도로의 포트홀은 광주시에서, 폭 20m 미만 도로는 5개 자치구에서 각각 보수한다.

도로 포트홀은 시설용 염화칼슘이 노면을 부식시키거나, 아스팔트 내부로 스며든 눈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빙기에 주로 발생한다. 운전자가 주행 도중 느닷없이 포트홀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자칫 타이어 펑크를 유발할 수도 있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광주 시내 폭 20m 이상 도로의 포트홀은 하루 100건 꼴로 발생하는 반면 보수작업은 더디게 진행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의 포트홀 보수작업이 더딘 까닭은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광주시의 경우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 소속 보수반(3개조 12명)과 외주업체 소속 6개조 18명이 포트홀 보수작업을 맡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 외주업체 도급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입찰공고 후 계약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3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포트홀 보수작업이 지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주시는 해빙기에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포트홀 보수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알려주는 속담이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되새겨보는 요즘이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각 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 아직 피어보지 못한 청춘이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아역배우 출신 김세론이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2년 전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왔었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에 몰려다 사

포함한 언론매체와 기자, 악플러의 행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산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의도치 않게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에 혹여나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을까. 악플에 의한 여배우의 안타까운 선택을 접하면서 말의 힘을 새삼 되새겨 본다. 뼈 때리는 말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말의 힘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